

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강의 18, 고린도후서 및 갈라디아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역사와 문학 과정에서 Dr. Dave Mathewson이 강의한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18번째 강의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고린도후서를 좀 더 빠르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배경과 쓰여진 이유, 주요 주제 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좀 더 높게 향해하거나 좀 더 높이 날게 될 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시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몇 가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고 질문을 해보자. 왜 고린도인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내는가? 괜찮은.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게 계시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록, 즉 과거의 계시에 대한 기록이자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에게 계속되는 계시를 기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의 결과로 우리가 그 계시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고 심오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마지막 수업 시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고린도전서는 실제로는 고린도전서는 단지 하나의 서신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읽을 수 있는 선교 여행 중 하나인 고린도 도시. 바울은 기본적으로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살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그 후 적어도 글을 썼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네 통의 편지. 그 중 두 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살아 남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서신 자체에서 언급되지만 더 이상 그런 내용이 없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인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럼, 교회의 우편물, 초대교회의 우편물,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라고 부르는 편지의 또 다른 부분을 뽑아봅시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 것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네 번째 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인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냈습니까? 우선, 고린도전서 이후에 분명히 많은 고린도인들이 고린도전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준 다양한 지시들은 모두 교회가 어떻게 세속적인 고린도 문화의 가치관과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도록 허용했는지, 특히 계급 차별과 사회적 엘리트주의, 후원자와 의뢰인의 관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사회적 역학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그의 편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바울은 고린도 회중의 말썽꾼들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후 다시 도시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 시점에 언급되지 않은 고린도로 또 다른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히 고통스러운 편지,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편지를 씁니다.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고민과 마음의 애통함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절

바로 앞 구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은 1절로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바울과 고린도 회중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그 사람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구이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쓴 것은 아마도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또 다른 편지인 이 이전 편지를 참고하여 내가 갈 때에 나를 기쁘게 하여야 할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임을 여러분 모두에 대해 확신합니다.

내가 많은 고민과 마음의 번민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바울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고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쓴 후 언젠가 쓴 이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편지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고통스러운 편지 이후에 바울은 많은 고린도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편지에 반응을 보였고 그들이 바울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실제로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 편지에 대해 희망했던 방식으로 적절하게 반응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과 함께 바울은 고린도에 아직도 자신과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로 알고 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적어도 고린도전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적어도 4개의 편지를 알고 있으며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 중 4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으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 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아직도 자신과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이제 이렇게 편지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고린도인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신약성서의 편지가 순전히 신학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단지 앉아서 자신의 모든 신학적 사고를 표현하는 에세이나 교과서를 쓰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매우 목회적인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즉,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읽은 책을 통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심지어 자신이 행한 로마서와 같은 로마 도시와 같은 몇몇 교회들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앉았지만 여전히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앉아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은 신학이며, 고린도후서는 분명히 1세기 도시 고린도에서 발생한 중요한 문제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왜 그것을 썼는가? 기본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 눈물의 편지에 응답한 고린도인들을 칭찬하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래서 응답한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쓴 것이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기 위해 쓴 것이기도 합니다. 그를. 가능한 영어 번역을 사용하기 위해 바울이 슈퍼 사도라고 부르는 개인 그룹. 이 슈퍼 사도들은 바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경고하고 훈계하여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문제 중 하나는 고린도후서를 주의 깊게 읽을 때 대략 10장부터 시작하여 서신의 중간쯤에서 바울의 태도와 어조에 다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1-9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조로, 여기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 새 언약의 사역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의 이전 부분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도와 사역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확립했지만 1-9장은 전망과 어조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10장에 이르면 바울의 어조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거칠어 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전환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10장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9장의 끝 부분에는 10장의 더 거칠고 부정적인 어조에 대비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갑작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는 고린도후서가 실제로는 적어도 신약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를 실제로 바울이 쓴 두 개의 별도 편지를 편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변화가 너무 심해서 두 글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9장과 10-13장이 신약성서에 들어갈 때 결합된 두 개의 별도 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합쳐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로 알고 있는 편지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 글자를 서로 다른 글자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아마도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제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두 개의 별도 문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어딘가에 이 편지 중 하나가 실제로 바울이 2장에서 언급한 눈물의 편지이고, 눈물의 편지는 이 부분, 아마도 10-13장에 포함된 편지 중 하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다시 말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약성서에 있는 형태로 우리는 고린도후서라고 부르는 이 책이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3장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목표는 완성된 텍스트,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텍스트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 두 부분의 어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것이 두 개의 별도 문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썼고 나중에 서기관이나 누군가가 가져온 두 개의 별도의 편지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고 1-9장과 10-13장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약성서에 들어와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라고 부르는 멋진 편지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9장과 좀 더 부정적인 10-13장 사이의 관점과 어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힘든 밤을 보내고 1-9장을 마치고 잠을 잘 못 자고 짜증이 나서 일어나서 10-13장을 썼을 것입니다.

그거 마음에 안 들었나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몇 가지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선, 우리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앉아서 모든 것을 한 번에 기록해야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나요? 모르겠어요. 아마도 1세기에는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중 일부를 쓰고 그로 하여금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쓰게 만든 새로운 정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받은 일부 정보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더 부정적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그가 신호한 고린도전서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내가 나에게 쓴 내용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0장에서는 그가 추가 소식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암시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듯합니다. 그는 추가 정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독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의 어조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1-9장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특별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반면, 10-13장에서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반대하고 도전하는 고린도의 동일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권한.

그러므로 그의 어조는 여전히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거칠고 부정적이 됩니다. 따라서 어조의 변화는 두 개의 개별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두 개의 개별 그룹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한 사람은 그가 칭찬한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다른 사람은 여전히 그를 반대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조가 더욱 거칠고 부정적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어조의 변화가 반드시 후기 서기관이 편집하고 통합한 두 개의 별도의 편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다른 부분과 바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 8-9장에 있는 좀 더 긍정적인 첫 번째 섹션의 끝 부분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은 다소 긴 섹션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부라는 주제에 대해 가장 긴 부분을 사용하거나 우리 중 일부가 십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바울은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헌금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면 모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이나

모금을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1세기에 기근과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겪었고, 아마도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기근 구제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모으려는 바울의 시도일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 아니면 질문과 관찰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좀 더 실용적인 신학적 유형의 관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느냐? 내 말은, 이것이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 이어진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중 일부에 대해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본 것들은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모금과 헌금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 보내도록 격려했을까요? 훌륭한 인도주의자가 되어 고통받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관심을 보이는 것 외에도, 그들이 자원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바울은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토록 열심이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유대인이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라면, 이것은 이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연대를 확립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관심을 보다 실용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모금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보내게 함으로써 바울이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워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연대를 실용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와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 주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맞아 맞아. 응,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이방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진정한 뿌리를 인식하고,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인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요청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분리되어 나그네와 나그네와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느니라.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소유한 구원에 대해 유대인 배경에 대해 상기시키고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군요.

이 본문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적어도 생각해 보는 것이 흥미로운 실용적인 신학적 문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과 비교할 때 신약에서 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장된 처리가 흥미롭습니다. 적어도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은 결코,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신약성서에서 우리에게 10%의 십일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우리가 기부하는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관대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즉 소득의 10%를 기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불합리한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범죄입니다. 그들은 쉽게 하차하고 있습니다.

10%, 아마도 30~40%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능한 한 넉넉하게 드리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별거나 벌어들인 것의 1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장 관대한 금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능한 한 관대하게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린도후서에 관해 말씀드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주요 주제 또는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바울이 슈퍼 사도들이나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 바울의 사도직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주요 표시 또는 표시가 항상 그의 고통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적 권위의 진실성이나 타당성을 지적할 때, 그가 수사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권력을 휘두르는 능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항상 흥미롭게도 자신의 고통을 지적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에서 고난은 적어도 바울의 경우 그의 약함이나 이 슈퍼사도들에 대한 종속의 표시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분명히 이 슈퍼사도들이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약점을 그가 실제로 사도가 아니라는 표시로 지적했지만, 바울은 그의 고난이 실제로 그의 사도직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표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12장의 편지 끝 부분에서 그가 쓴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장 끝 부분에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아이러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슈퍼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반대하고 자신의 자격을 자랑하고 바울에게 자격이 없고 말과 발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했듯이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으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들이 자랑하려고 할 때, 나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환상과 계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을 나는 압니다. 그가 그것을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낙원 곧 하늘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곧 어떤 인간도 반복해서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즉, 바울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나중의 살피보게 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과 같은 환상적 유형의 경험을 했습니다. 학기.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어떤 한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종류의 방해나 무엇인가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에 관해 온갖 종류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시력이 나쁜 바울과 연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질병이나 언어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이었나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바울은 “이에 대하여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장애를 제거해 주시기를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내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재난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마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직에 대한 자격 증명으로 자신의 약점을 지적하는 바울의 대답 중 일부는 자신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연약함을 볼 때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라는 다른 선택이나 결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함과 고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슈퍼 사도들에 맞서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신임장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주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의 주제를 요약한다면, 지배적인 주제 중 적어도 하나는 고난을 통한 영광일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것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 안에서.

알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관해 질문 있으신가요? 내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로 바울의 서신과 그의 명령과 그의 사도직에 응답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여전히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고난과 약함을 지적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난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분은 고린도후서에 관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모든 것,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제가 고린도후서를 좀 빨리 읽어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 우편물의 또 다른 부분을 열어보면 우편함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꺼낼 것입니다. 이제 발생하는 질문 중 하나는 편지를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1세기 우편배달원이었고, 신약성서 소개를 읽으면서 이 내용을 알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1세기 우편배달원이었고 바울이 편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아, 너희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느냐? 곧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는 도시였고 고린도는 도시였지만 갈라디아서에 가서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하나의 지역이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내 말은, 만약 당신이 1세기 우편배달원이었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어디로 가져갔겠는가?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갈라디아로 갔다거나 그와 유사한 언급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디로 갔을까요? 이 편지를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는 모든 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구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1세기에 편지를 여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그런 다음 우리는 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세기에는 소중한 누구누구 대신에 편지의 저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과 수신인의 이름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위임으로나 인간의 권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본 지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과 사도행전 28장에서 그가 로마로 떠난 마지막 여행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약간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대부분의 도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 갈라디아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디 있나요? 바울이... 여기 위에 갈라디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바울의 여행 중 어느 곳에서도 실제로 이 지역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의 활동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터키와 그 당시 소아시아였으며, 바울의 활동의 대부분은 남부, 즉 현대의 터키 또는 소아시아의 남쪽 절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다시는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갈라디아는 어디에 있나요?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실제로 교과서에서 읽고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북갈라디아 이론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즉, 원래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터키 중부 또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살았던 갈라디아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은 갈리아인들이 정착한 곳이었을 것이며 나중에 갈라디아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북갈라디아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가 갈라디아의 민족 지역인 민족 지역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디를 갔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여행 중 어딘가에서 그는 갈라디아로 알려진 터키 중부 북부 지역으로 모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그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갈라디아 이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할 때, 그는 갈라디아 민족, 즉 실제 북쪽 나라인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갈라디아 이론이라는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가 점령한 1세기 무렵입니다. 로마는 실제로 갈라디아를 자신의 속주 중 하나로 설립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로마 제국이 점령하면서 영토를 통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영토를 속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방 중 하나가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로마의 갈라디아 지방은 남쪽으로 지중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 즉 남부 갈라디아의 관점에 따라 바울은 남부 갈라디아에 있었던 일련의 도시인 리스트라와 더베라는 일련의 도시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갈라디아 지방이다.

그럼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북갈라디아는 갈라디아가 원래는 북쪽 갈라디아 나라만을 가리켰다고 말합니다. 민족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터키 중부 북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로마는 이 곳을 속주로

바꾸고 갈라디아를 터키 남부, 즉 오늘날의 터키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곳은 바울이 여러 차례 방문했던 여러 도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어느 것을 고수해야 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아마도 여기 남부에 있는 이 도시들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즉 갈라디아는 민족국가가 아닌 로마 속주를 가리킨다. 따라서 바울은 선교 여행 중 남부 갈라디아, 즉 로마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 지역을 방문했던 여러 교회나 도시에 대해 연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연설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내려오시면 북쪽, 그곳이 남부 갈라디아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편지를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는 없지만 질문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음 이것이 사도행전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민족 지역인 갈라디아 주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당시 로마 갈라디아 속주로 알려졌던 남부 터키에서 바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바울의 우편배달원이었고 그가 당신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마을들로 가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를 사도행전과 어떻게 연관시키는가, 즉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모순되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서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일찍이었나, 늦었나요? 글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무엇에 비해 빠르거나 늦습니까? 일찍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더 이른 날짜에 따라 기록되었다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의 신약성경 서신들은 쓰여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 길이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일찍 데이트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일찍 쓴다면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아마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적어도 우리가 기록으로 갖고 있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날짜를 늦게 계산한다면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되거나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조금 후에, 그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지 몇 년 후에 나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AD 연도까지의 정확한 날짜에 대해 이 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찍 날짜를 지정한다면 갈라디아서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 아마도 Paul이 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날짜를 정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다음 줄에 있으며,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로 목록의 맨 위에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인지 두 번째 편지인지, 사도행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요소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입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함께 모여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문제를 다루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리고 합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구약의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갈라디아서가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줄을 서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나열하고 있을 뿐인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읽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일종의 열심당원인 바리새인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율법과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1세기의 테러리스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바울은 회심했고 또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으며, 이 장들에서 바울은 두 번의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방문 중 하나는 그가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러뜨리시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직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여행한 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의 두 번의 여행을 언급합니다. 개종한 후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이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두 번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15장은 바울의 회심으로 시작되는 9장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 9-15장에는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10장에 있는 첫 번째 것은 분명히 그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한 직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9-10장은 똑같은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두가 그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갈라디아서 2장의 예루살렘 방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대한 기근 구호 활동을 도우러 갔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사도행전 9-10장까지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둘 다 같거나 등호입니다. 둘 다 같은 방문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즉 바울이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 즉 기근 구제 활동을 언급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른 곳과 늦은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 사도행전 11장에 기근 구호 방문을 언급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가장 오래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 예루살렘 공의회인 사도행전 15장을 언급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몇 년 후에 기록되고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갈라디아서 2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유대교에서의 그의 삶과 회심을 둘러싼 바울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는 회심한 지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사도행전의 방문 중 어느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바울이 쓴 첫 번째 책 편지라고 생각하는지, 즉 사도행전의 방문을 언급하는지, 아니면 갈라디아서는 조금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갈라디아서 2장이 사도행전 15장을 언급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을 언급한다면 갈라디아서는 그 이후 어느 시점, 즉 요한복음의 중간 지점을 훨씬 지나서야 기록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그러나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을 언급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5장이 발생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일찍 배치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것을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이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갈라디아서는 그보다 조금 늦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는 아마도 이 책은 적어도 바울 서신에 대한 증거가 있는 최초의 책입니다. 좋습니다. 남북 갈라디아서 문제에 관해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바울이 편지를 쓴 시대에 갈라디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맞아요, 당신 말이 딱 맞아요.

이는 실제로 소수 입장이다.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약성서, 도서관에 가서 교과서와 유사한 신약성서 조사나 서론을 보면 대부분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1장을 연결하고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로 배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그러나 나는 갈라디아서 2장이 사도행전 15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여전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기록을 읽으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 기록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의 서간서 장르에 대해 크게 축약할 것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관찰을 통해 제가 방금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2장, 사도행전 15장의 날짜에 관해 말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반대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책을 쓴 목적이나 이유에 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부 세부 사항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우 광범위하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추론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모두 시간을 내어 갈라디아서를 읽는다면, 그 책을 주의 깊게 읽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와는 매우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은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기억하시면 요약하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도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기반을 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은 바울의 복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훼손시키려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룹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과 학자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무리를 보통 유대교인, 즉 모세의 율법 아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거나 강요하려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 슬라이드는 바울과 유대교도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교도들은 그들이 기독교, 기독교 유대인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표시로서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칭의나 구원을 가져옵니다. 또는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의롭다 함을 의미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군가를 입증하는 것 외에 신원 표시와 모세 율법의 생활 방식이 칭의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소 너무 단순하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 공식을 다시 작성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칭의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칭의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결합되어 있음을 제안할 것입니다. , 바울은 이것을 성령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율법을 제거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방정식에서 모세의 율법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에 모세의 율법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을 갖게 하지만, 여기에는 바울이 새 언약 성령에 돌린 순종이 동반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새 언약의 일부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성령의 임재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중 일부는 그분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순종으로 여깁니다.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서가 끝날 때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살펴보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순종을 율법 아래서 사는 삶과 연결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새 언약 성령에 참여함으로써 순종을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바울이 어떻게 공식을 뒤집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나 심지어 바울의 견해에 공식을 부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울이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 것 같고 그의 해결책은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비록 신약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문서들의 인간성을 결코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이 문서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글쓰기와 구성 방식을 사용하며, 심지어 개별 작가의 독특한 어조와 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쓴 방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하면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약간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정말로 그 편지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제시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내성적이거나 더 계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정말 초조해하고 그의 어조가 좀 더 갑작스럽고 거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그가 지금 직면한 상황에 대해 정말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가 1세기의 편지처럼 시작한다고 말한 서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 갈라디아서의 독자들을 식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 편지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폴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신약성서에 쓴 다른 모든 서신들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고 1세기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는 독자들이 행한 일이나 독자들의 삶의 어떤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1세기 세속 편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자들을 위해 신이나 로마의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그들의 건강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개 독자들이 행한 일에 대해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는 복음 안에서의 발전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가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편지에서 이상하지만, 1세기 편지에서도 때때로 마찬가지로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 1장과 6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서문 직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하는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강한 언어입니다. 또 그는 감사를 생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너희가 그렇게 속히 미혹을 당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6장 11절에서 그가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6장 11절에서 그는 내가 내 손으로 글을 쓰는데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다시 1세기 편지 작성자의 상당히 전형적인 관습에 따라 서신이나 비서의 서비스를 고용했을 것이며 아마도 자신의 편지를 받아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게. 갈라디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펜을 들고 “내가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이것을 육체의 가시와 연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시력이 나빠서 보지 못하므로 큰 글자로 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엔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인 것 같아. 나는 이것이 바울의 분노와 괴로움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치 그가 이제 펜을 들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글자를 썼는지 보세요. 즉, 너희가 이 복음에서 너무 빨리 반응하고 떠나는 모습에 내가 놀랐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 매우 다른 어조를 봅니다. 우리는 주로 격려가 될 편지를 볼 수 없으며 그는 독자들을 많이 칭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바울은 독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좌절과 절망, 놀라움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제 이방인들을 강요하려는 유대교도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도록 설득력 있게 노력하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의 삶에 복종하고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의롭다고 선언되고, 입증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속하기 위한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어떻게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운 봄방학 보내세요.

이것은 신약 역사와 문학 과정에서 Dr. Dave Mathewson이 강의한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18번째 강의였습니다.